

교회소식 Bekanntmachungen der Gemeinde

마인츠중앙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ir heißen alle herzlich willkommen und segnen im Namen des Herrn.

- 김나윤-Fabio 성도 가정에 (6/21) 아기가 (Ina Rougier 이나 루지에) 태어났습니다.
- 상반기 BTS(하나님의 구원경영 1-1기)를 마쳤습니다.
- 중동선교사협의회 형가리대회(6/24-27)에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목사와 사모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6/30) 알바니아 단기선교를 위한 선교바자회가 있습니다.(부장: 박경애집사)
- 7/1-12 몽골 밀알찬양대행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범, 남사랑, 장재성, 최혜경)
- 카스텔 쉼터(한독친목회)를 오늘 오픈합니다. (14:30-17:00), 요하네스페스트 불꽃놀이 관람을 위해 월요일(6/24) 21시에도 쉼터를 개방합니다. 매주 토요일(09:30-13:30, 7/13까지) 커피와 간단한 브런치를 준비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가정 심방과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들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유아부에서 선생님을 모십니다. 충성되고 선한 일꾼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장재성전도사, 안미영권사)
- 2024 말씀사경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느헤미야서 1독하기)
강사: 김종복 목사 (인천 하나님비전교회 담임)
일시: 7/12(금)오후 8시, 13(토) 오후 8시, 14(주일) 경오(12시), 14(주일)오후 3시 30분
- 김호영-한상순집사님 가정이 다음 주 화요일(6/25) 베를린으로 이사를 합니다.

섬김이

담임목사 한성호
교육전도사 장재성
시무장로 소병찬, 이정수, 이태성

예배 및 봉사구역

날짜 기도 안내 봉사

- 06.23 소병찬 이재현 6여+1조, 희락 오진주 사닥다리
- 06.30 안성희 이홍규 2+3조, 화평 윤나라 고고셀
- 07.07 정향림 장은준 4+5조, 인내 이민지 도와조
- 07.14 김유진 김계성 6+7조, 자비 인혜진 삼겹조

후원 선교지

- 키르기스스탄(다니엘 P)
- 코소보(S00)
- 독일 르른(N00)
- 캐나(L00)
- 베트남(L00)
- 타지키스탄(L00)
- 마다가스카르(B00)

온라인 현금 안내

IBAN: DE78 5519 0000 0962

2740 15

BIC: MVBMDDE55

:: 온라인 현금 시 입력 항목 ::
십일조 - Zehnte
감사헌금 - Dankopfer
주일헌금 - (Sonntags) Kollekte
월정헌금 - Monatskollekte
선교헌금 - Spende f. Mission
건축헌금 - Spende f. Kirchenbau

*온라인 현금은 비고란에 위 항목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인츠 중앙교회

AD.1986 Evangelische Kirchengemeinde Mainz Chung-Ang e.V.

원로목사 박의석
담임목사 한성호

목양실. 06131 380 9981
Berliner Str.37 55131 Mainz
www.machung.net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33)

Trachtet am ersten nach dem Reich Gottes und nach seiner Gerechtigkeit, so wird euch solches alles zufallen. (Matthäus 6:33)

제39권 25호 2024년 6월 23일

인도자: 한성호 목사

찬	양	Lobpreis	찬양부
※	묵	도	다함께
※	찬	송 Lobpreis	1 장
※	신	앙 고 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성	시	교 독 Wechsellesung	39 문
대	표	기 도 Gebet	소병찬 장로
봉	헌	Kollekte	324 장
성	경	봉 독 Schriftlesung	마태복음 16:24
찬	양	Lobpreis	인도자
말	씀	선 포 Predigt	하나님의 인도하심
광	고	Abkündigungen	성가대
※	찬	송 Schlusslied	자녀이고 제자입니다
※	축	복 기 도 Segen	한성호 목사
※ 표는 일어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안내

- 주일 예배 주일 12:00 본당
- 섬김 예배 주일 10:15 청소년부실
- 수요 예배 수요 20:00 본당

- 주일학교예배 영유아/유치 유년/초등 주일 12:00 별관
- 청소년부예배 주일 12:00 별관
- 청년부 예배 금요 20:00 본당

마태복음 6: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Matthäus 6:12 Und vergib uns unsere Schuld, wie auch wir vergeben unsren Schuldigern.

선행 vs 범죄행위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현대인들 중에는 도덕적 중립을 견지한 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동시에 그들을 향한 선행도 하지 않으면서 혼자만의 자기성에 갇혀 자족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곡된 도시 문화와 개인주의의 틀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런 생활 패턴을 훌륭하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주의적 생활 습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에까지 침투하여 성도들도 서로간에 마음을 열어놓기를 거부하게 하며 고독한 혼자만의 신앙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자기가 편한 소수의 사람들과 조금 확장된 또래집단의 올타리를 만들어 조금 덜 고독한 (?)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기와 무관심은 개인의 삶을 편리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와 교회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함은 요한복음 13:34에서 주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범위가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편하게 하는 존재만은 아님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하나님은 창세기 4:7을 통해 선행에 대해 적극성을 띠지 않는 것은 곧 죄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창 4:7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는 말은 ‘죄를 짓지 않은 자는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반영한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곧 ‘네가 잘했으면 떳떳하지 않겠느냐’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잘못을 뉘우치고 선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갖기는커녕 도리어 더 완악한 마음을 갖는다면’이란 뜻이며 그 결과는 죄가 문에 엎드려 있게 됩니다.

‘엎드려 있다’는 말은 ‘咎복하다’는 뜻으로 억이를 단숨에 낚아채기 위해 웅크리고 있는 짐승의 모습입니다.

죄는 늘 삼킬 자를 향하여 달려들 기세로 잔뜩 웅크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포획하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는 이렇게 나를 삼키려는 죄, 사탄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약 4:17도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므로 선행에 대해 소극적인 사람은 진리에 대한 열의가 없는 사람이고 나아가 적극적인 악으로 진행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선행을 할 기회를 간과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기회를 등한히 했다는 것으로 이미 죄를 짓은 것입니다.

사탄과의 타협은 곧 패배입니다.

선과 악의 전쟁터에서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에게 회색 지대가 되는 무관심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망을 물리치고 이겨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나의 의지나 결단, 인내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만하여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성호목사

기도 제목

-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 흔들리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맘몬을 숭배하는 믿음이 아닌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영적 경주에 힘쓰게 하옵소서.
- 하나님 나라의 비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 교회와 가정이 예배공동체, 신앙공동체, 가족공동체, 문화공동체, 선교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 2024년 아비투어 mündlich를 준비하는 김윤찬, 이민호에게 성령의 지혜와 충기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 베를린으로 이사하시는 김호영, 한상순집사님 가정에 평안과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 이승재목사님의 정착(비자, 보농계약 등)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형통한 은혜를 주옵소서.
- 중동선교사협의회 형가리대회(6/24-27)에 참석하는 담임목사와, 동행하는 박성미사모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충만하게 하사 선교사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옵소서.
- 밀알몽골찬양대행진(7/1-12, 남윤범, 남사랑, 장재성, 최혜경)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정되게 하옵소서.
- 산모 김나윤성도의 회복과 아기 이나 루지에를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 셋째를 임신한 장유진(안광진)성도의 건강과 태아를 보호하옵소서.
- 선교사님의 삶을 지키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로 복음전파에 충성할 수 있도록 건강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초대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마인츠중앙교회는 주님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신앙공동체, 가족공동체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힘쓰는 예배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더불어 행복한, 이곳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예수공동체
마인츠
중앙교회는

.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승하는 신앙공동체입니다.

.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력 있는 예배공동체입니다.

. 주님의 보혈로 맺어진 행복한 가족공동체입니다.

. 건강한 교회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공동체입니다.

.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 우리, 교회 Vision 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예수공동체가 됩시다.